



전도서

1:1 전도자 소개

1:2-11 헛되고 헛되다/전도자 시

1:12-2:26 회상

- ① 지혜의 고민 (1:12-18)
- ② 세상의 성공과 의미(2:1-11)
- ③ 지혜와 어리석음(2:12-17)
- ④ 인간 수고의 의미(2:18-26)

3:1-15 전도자의 시

3:16-4:16 회상

- ⑤ 의인과 악인의 보상(3:16-22)
- ⑥ 사회적 억압(4:1-3)
- ⑦ 성공과 시기(4:4-6)
- ⑧ 어떤 부자, 대안적 삶(4:7-12)
- ⑨ 신분상승(4:13-16)

5:1-9 전도자의 케리그마

5:10-6:9 회상

⑩ 어떤 부자, 대안적 삶(5:10-20)

⑪ 욕망의 한계(6:1-9)

6:10-7:14 이익의 문제

7:15-10:20 회상

- ⑫ 하나님 경외(7:15-22)
- ⑬ 지혜의 신비(7:23-8:8)
- ⑭ 의인과 악인(8:9-11)
- ⑮ 인간의 한계, 산 자의 기쁨
- ⑯ 신비와 섭리(9:11-12)
- ⑰ 가난한 지혜인의 고뇌
- ⑱ 지혜의 유약성(9:18하-10:20)

11:1-12:7 전도자의 케리그마

12:8 헛되고 헛되다

12:9-14 편집후기

참고도서

두란노 How,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WBC 주석, 현대성서주석
다시 일어서는 목회

귀환 이후, 유대인 공동체는 꾸준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5만 명이던 인구는 1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주전 3세기 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지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후 헬라 제국들로.

패권만 이동될 뿐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일은 동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기 경험으로 <종교적> 타협에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이라는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경제정책은 신흥부자를 양산했습니다.

반면, 하루아침에 빈손이 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급격한 경제변동으로 사회혼란과 빈부격차가 발생했습니다.

헬라 정신은 인간의 무한한 능력과 이성을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은 헬라의 지혜와 문물을 당대 최고로 여겼고,

신분 상승을 위해 <헬라 스펙>쌓기 붐이 일었습니다.

신분상승은 곧 부의 축적과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제국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했습니다(1:12-18, 5:2).

전도자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전도서는 장막절에 낭독되었습니다.

장막절은 광야시절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추수를 축하하는 주기적인 축제가 결합된 절기입니다.

전도서는 <제국>의 스펙 쌓기에 열중한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 오만해진 이들을 향해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은 추수까지의 과정과 광야생활을 회상했습니다.

알곡 한 알이 맺히기까지의 자연 만물, 그 운행을 묵상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 비, 바람, 태양, 온도, 창조 세계의 움직임.

광야시절을 회상하며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너를 낫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 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하심이니라(신 8:3).

전도자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한 가운데서 고민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인과응보가 적용되지 않는가? (7:15, 8:14)

부를 축적할 제도적인 기회가 주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10:19).

부가 있으면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혹 지혜가 도시를 구할지라도 지혜자는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지혜자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아니, 가난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9:13-16).

재판하는 곳에 정의가 있는가? (3:16)

가난한 자, 약자들에게는 위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4:1).

권세 있는 자들이 학대를 해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존이 버거운 사회가 되었습니다(4:2).

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지방이든 만연한 일입니다(5:8).

정의와 공의를 기대할 수 없는 불의한 정치, 불의한 사회입니다.

부가 권력을 낳고 권력은 곧 억압을 통해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합니다.

생존과 생계를 위해 늘 <왕>에 복종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합니다(10:20).

확실한 것이 없는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소유에 더 집착합니다(4:4, 9:6).

소유를 위한 노력 역시도 한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5:13-15, 6:2).

그러나 불안하기 때문에 목적을 몰라도 열심히 일합니다(4:7-8).

시기하고 경쟁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4:4)

제국 지배 하에서 유대인들은 부와 세련된 생활, 사회적 명성을 얻고자 경쟁했습니다.

세계화의 유행에 합류했습니다. 신식문물을 습득하고 정신 사조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우고 익힐수록 얻는 것은 열등감과 소외뿐이었습니다.

더 갖지 못한 결핍이 커가고, 더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지니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스펙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스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시작과 끝을 동일한 말씀으로 열고 맺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1:2, 11:8).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움켜쥔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空)입니다.